

제국의 시선과 식민지적 낭만성*

— 다카하마 교시의 「조선」 속 ‘천진루’와 ‘정치낭인’의 의미

송민호**

[초 록]

나쓰메 소세키는 1909년 만주와 조선을 여행하고 남긴 여행기에서 당시 국제 정치적 상황을 우려하여 스스로 ‘조선’ 부분을 빼버릴 수밖에 없었다. 이후 다카하마 교시는 1911년 조선을 두 번 여행하고, 소설 「조선」을 썼다. 하지만, 일본의 패망과 조선의 해방이후, 교시의 이 소설은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는 평가로 교시의 문학사에서 타율적으로 배제되었다.

본 연구는 이 두 가지 삭제된 ‘조선’을 중심으로, 제국주의 시대의 문학자들이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정치성에 대한 지향을 해명하고자 시도한다. 소세키와 교시는 2년을 사이로 두고 ‘조선’을 여행하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A2A01041251).

** 홍익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주제어: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다카하마 교시(高浜虛子), 조선(朝鮮), 완도사건(莞島事件), 정운복(鄭雲復), Natsume Soseki(夏目漱石), Kyoshi Takahama(高浜虛子), Joseon(朝鮮), Wando Scandal(莞島事件), Chung Un-Bok(鄭雲復)

며, 여관 ‘천진루’와 ‘정운복’이라는 인물을 통해 연결되어 있었다. 교시의 소설 「조선」 속에 등장하는 ‘완도사건’을 매개로 이 ‘천진루’라는 공간은 조선을 바라보는 정치낭인들의 음모의 공간으로서 낭만성을 부각한다. 이 ‘완도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은 일제 강점 이전 한국에서 일진회와 통감부 사이의 정치적 연결을 도모했던 우치다 료헤이였으며, 소설 속 낭인 ‘고조’의 모델일 가능성이 있다.

본 논문은 을미사변으로부터 완도사건에 이르는 정치낭인의 활동에 대한 낭만적 접근이 이 소설 「조선」에 깔려 있는 배경임을 확인한다. 비록 교시 자신이 정치성과 거리를 두고 있는 문학적 사생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사생의 시선 속에 정치적 낭만성의 분위기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는 제국주의 시대 문학이 가질 수밖에 없는 공통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1. ‘조선’은 어째서 삭제되어 버렸는가

— 소세키와 교시가 삭제할 수밖에 없었던 ‘조선’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신정부의 수립 과정에서, 정치 투쟁에서 패배한 지방 토호들의 상실된 자존심이나 그 와중에서 좌절될 수밖에 없었던 사족들의 정치적 욕망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면을 맞이하였다. 이를 위해 메이지 신정부는 일본 내에 ‘서력동점’(西力東漸)의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며, 그들의 시선을 주변국으로 돌리는 정책을 전개하였고, 바로 이것이 메이지 정부의 급격한 제국주의화의 주요한 내적 동력이 되었다.

특히 이는 일본에게 있어 전통적으로 대륙을 향하는 길목이었던 조선에 대해 다시금 ‘정한’(征韓)이라는 옛 미명을 되살려 일본 내에 들끓고 있던 정치적 욕망을 분출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일본 정부가 군함을 파견하여 조선의 문호가 강제로 개방되었던 강화도조약에서부

터,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으로 이어지는 일본 제국주의의 대륙진출의 국면에서, 조선과 관련된 주요한 사건들마다 일본의 정치가들은 조선 문제에 개입하게 된다. 조선은 정부 내에서는 이렇다 할 자리를 얻지 못했던 이른바 낭인화된 정치가들의 자신들의 그릇된 이상을 표출하는 활동의 거점이 되었던 것이다.¹⁾

이러한 정치적 구도와 더불어, 메이지 초기 이후 ‘조선’을 대상으로 했던 서사들은 어느 것이나 주로 대륙을 향하고 있던 일본 내의 정치적 욕망을 자극하고 있었다. 그 대부분은 조선을 배경으로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으로 기회를 펼칠 수 있는 낭만적 공간으로 표상하였던 것이이거니와,²⁾ 1885년부터 1897년까지 계속 창작된 도카이 산시(東海散士)의 정치소설 『가인지기우』(佳人之奇遇)에서 산시가 보여준 ‘조선’ 등 약소국에 대한 태도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³⁾ 이어 나카라이 도스이

- 1) 이 시기 일본 내의 아시아 팽창주의와 낭인화된 정치인들의 조선을 넘어 만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상일의 『아시아 연대와 일본제국주의 — 대륙낭인과 대륙팽창』(오름, 2002)과 강창일의 『근대 일본의 조선침략과 대아시아주의』(역사비평사, 2002)를 참고할 수 있다.
- 2) 朴春日(1969), 『近代日本文学における朝鮮像』, 未來社, pp. 20-98. 박춘일은 1868년부터 1912년에 이르는 이 메이지시기를 ‘폭풍의 시대’(嵐の時代)로 규정한다. 그는 이 시기 일본 내에서 일어난 조선에 대한 관심을 조선 내의 중요한 사건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정한’(征韓)이라는 제국주의 논리를 구축하여 대륙침탈에 이르고자 하는 욕망의 분출과 그에 대한 미약한 반작용이었다고 평가한다.
- 3) 표세만(2017), 「도카이 산시(東海散士) 『가인지기우(佳人之奇遇)』의 조선 인식 — ‘사소설’적 가능성과 관련하여」, 『日本語文學』, pp. 343-362. 표세만은 도카이 산시가 『가인지기우』의 초반부에 반제국주의의 기치를 들고 약소국 연대를 내세웠던 것에 비해, 후반부에는 철저하게 제국주의 욕망을 노정하는 것으로 일관하며, 정치의 전면화와 문학의 망실로 이어졌다고 평가한다. 여기에는 산시가 가진 ‘국가’의식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막말유신기에 토막파에 대항해 싸우던 아이즈번 출신의 산시가 갖고 있던 망국민의식이 약소국에 대한 연대와 균형감각으로 이어졌던 것이나, 이후 그가 조선에 파견된 을미사변의 주범 미우라 고로 일본 공사의 고문역으로 조선에 건너간 체험이 영향을 주어, 결국 그와 같은 파탄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이 무렵의 소설이 ‘조선’을 대하는 태도가 메이지 유신 이후의 일본

(半井桃水)의 『조선에 부는 모래바람』(胡砂吹く風, 1893), 핫토리 테츠(服部徹)의 소설 『동학당』(東学党, 1894) 등의 서사들은 ‘김옥균의 망명과 암살’이나 ‘민비(명성황후)의 시해’, ‘동학란의 발흥과 쇠퇴’ 등 일본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정치적인 사건들과 관련하여 일본 내에서 좌절된 이들의 정치적 감수성을 자극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의 하이쿠 시인이자 소설가인 다카하마 교시(高浜虚子, 1874-1959)가 1911년 이제 막 식민지가 된 조선을 두 차례 여행한 뒤 바로 발표한 소설 「조선」(朝鮮)⁴⁾은 메이지 일본의 ‘조선’에 대한 표상을 담고 있는 서사의 일정한 경향을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연 작품으로 간주되곤 한다.⁵⁾ 이러한 판단에는 대략 두 가지 정도의 근거가 작동하고 있는데, 이 소설이 일제강점과 총독부 수립이라는 앞선 시대와는 달라진 정치적 환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치와 전혀 관련되지 않은 일본의 본격적인 문학가가 조선을 여행하고 난 뒤, ‘사생’이라는 예술적 이념 하에 창작된 작품이라는 점이 그것이다.

분명, 이 작품은 총독부 수립 이후, 좀 더 ‘안전하고’ ‘관리된’ 영토로서 조선을 표상하여, 이후 일본의 문학자들과 화가들을 중심으로 쏟아진 ‘만선’(滿鮮) 여행기 내지는 여행 문학의 시작점으로 볼 여지가 있다. 2년 전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1867-1916)가 만주와 한국을 여행하고 써낸 「만한이곳저곳」(滿韓所々)이 던졌던 조선에 대한 모종의 질문이 일제 강점 이후에 교시에 의해 소설로 답변된 사례라고 볼 수 있

내의 정치적인 구도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었는가 하는 문제와 더불어, 그러한 정치 우위성이 어떻게 다카하마 교시에게까지 연결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표세만 선생으로부터 직접 중요한 자문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둔다.

4) 교시는 1911년 4월과 6월 연이어 조선을 여행하였다. 첫 번째는 하이쿠 후배인 아카기 카쿠도우(赤木格堂)와 함께 4월 초에 부산, 대구, 경성을 거쳐 평양, 신의주, 안동현, 인천 등을 돌아보고, 5월 상순에 돌아갔다. 두 번째 여행에서는, 6월 9일에 경성으로 떠나 혼자 경성에 머물면서 「조선」의 원고를 집필했다.

5) 朴春日(1969), pp. 99-106.

을지도 모른다. 소세키와 교시의 관계를 고려하면, 소세키가 조선에 다녀온 뒤 2년 후에 조선을 여행했던 교시가 「조선」을 쓰면서 소세키의 여행기를 강하게 의식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일제에 의해 조선이 강점되기 직전, 남만주 철도의 총재였던 자신의 친구의 부탁에 의해 만주와 조선을 여행하고 여행기를 썼던 소세키와 조선총독부 수립 이후에 조선을 여행하고 여행의 결과를 소설로 쓴 교시에게 있어서 그 결과물이 온전히 문학적 창작이 아니라 제국주의 정치성에 소구되고 있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1909년 10월부터 『아사히신문』에 연재되었던 소세키의 여행기는 안중근 의사에 의해 이토 히로부미가 암살된 사건을 통해 국제 정세가 격화되며, 조선 부분의 연재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⁶⁾ 마찬가지로 1911년 6월부터 『오사카마이니치신문』과 『도쿄이치니치신문』 양쪽에서 동시에 연재를 시작한 다카하마 교시의 소설 「조선」은 초반부 식민지와 일본인에 대한 묘사가 문제가 되어 비난 여론이 일어나 오사카 신문 쪽의 연재가 중단되었다. 반면에 도쿄 쪽에서는 연재가 이어져 11월에 140회로 연재를 마치고 1912년 2월에 단행본이 출간될 수 있었다. 교시가 조선으로 첫 번째 여행을 떠난 것이 4월이었으니, 불과 1년도 안 되는 기간 안에 신문 소설 연재와 단행본 출간이 끝나친 것이다.

이 소설의 창작과 출판을 둘러싼 이러한 정황을 살펴보면, 이 작품

6) 「만한이곳저곳」(滿韓所々)은 소세키가 1909년 9월 2일부터 10월 14일까지 만주와 한국을 여행하고 난 뒤, 이를 『朝日新聞』 1909년 10월 21일부터 12월 30일까지 51회에 걸쳐 연재한 것이다. 소세키는 이를 1910년 춘요도(春陽堂)에서 발간된 『漱石近什四篇』에 같은 제목으로 실었고, 타계하기 직전인 1915년에 역시 같은 출판사에서 독립된 단행본인 『만주와 한국 여행기』(滿韓ところどころ)로 출판하였다. 사실 「만한」(滿韓)이라는 제목과 달리, 이 여행기에는 한국에 대한 내용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데, 이는 비슷한 시기 안중근 지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여 일본 내 한국에 대한 여론이 나빠졌던 까닭이었다.

이 단지 조선에 대한 탈정치적 내지는 문학적 시선의 발로에서 비롯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앞서 소세키의 여행기 역시 남만주철도의 제안으로 성사된 것인 만큼 일본의 대륙진출과 관련된 모종의 기획과 관련된 혐의가 짙게 드리워져 있으며, 교시의 「조선」 역시 일제 강점 이후 재편된 새로운 정치적 구도에 호응하여 기획되었을 가능성이 짙게 깔려 있다.⁷⁾

「조선」은 교시의 생전에 여러 번 다시 출간되었는데, 1932년에는 순요도(春陽堂)에서 문고본으로 다시 나왔고, 1934~5년 사이에 카이조사(改造社)에서 전체 12권으로 『다카하마교시전집』(高浜虚子全集) 5권에 장편 「감 두 개」(柿二つ)와 함께 실렸다. 이어 1942년에 나온 단행본 『조선』은 ‘염봉회’(荊峰會)라는 다카하마 교시가 조선 내에 만든 평양의 하이쿠 모임에서 출판된 것이다.

하지만, 1945년 일본이 패망하고, 1959년 교시의 사망 이후인 1974~5년에 걸쳐 16권으로 정리되어 나온 『정본다카하마교시전집』(定本高浜虚子全集) 속에는, ‘정본’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전집 내에 소설 「조선」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그뿐 아니라 교시가 「조선」을 쓸 무렵 써서 발표했던 「조선」 관련 여행기나 수필, 처음 조선을 여행했을 때인 1911년 4월 19일부터 5월 19일까지 『국민신문』에 발표했던 여행기, 『호토토기스』에 발표했던 「조선잡기」(朝鮮雜記), 「조선스케치4제」(朝鮮スケッチ四題), 「이완용백작」(李完用伯) 등의 여행 관련 글들, 1925년 무

7) 요네다 토시아키는 일본 패망 직전 우노 고지(宇野浩二)나 나카노 시게하루(中野重治) 등에 의해 다카하마 교시가 저평가되었던 근간에 바로 「조선」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는 주로 이 작품이 ‘소설’로서 ‘생활’에서 벗어난 즐거움을 갖지 못하였고, 결국 문학적 자율성이 아닌 총독부의 식민정책에 기여하여 정치성에 기울어졌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 소설이 단지 정치성에만 기울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과 허구 사이에서 독특한 자리를 차지하는 교시 특유의 소설적 미학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 글에서 제시하고 있다(米田利昭(1974), 「虚子の『朝鮮』」, 『日本文学』 23, 日本文学協会, pp.34-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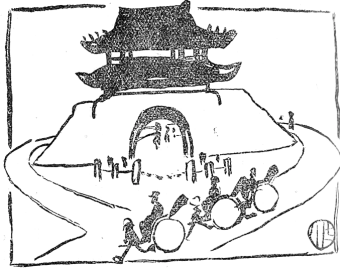
렵 교시가 다시 조선과 만주에 가서 쓴 「만선잡기」(滿鮮雜記) 같은 일련의 글들은 모두 34~5년 교시의 생전에 나온 전집에는 실려 있지만, 교시의 사후인 74~5년에 나온 전집에는 전부 빠져 버린 것이다. 그야말로, ‘조선’은 교시의 문학사 내에서 삭제되어 버렸다.

이 부자연스러운 삭제는 소세키의 만선여행기에서 ‘조선’을 삭제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과 기묘한 짝을 이루고 있다. 다카하마 교시는 하이쿠 잡지 『호토토기스』의 편집자로, 나쓰메 소세키가 소설가로 자리 매김하는 데 중요하게 기여하였다.⁸⁾ 그 둘은 일본의 근대 문학사 내에서 특수 관계로 하나의 중요한 문맥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다만, 그들은 똑같이 ‘조선’을 마주하였으면서도, 소세키의 경우, 자신의 여행기에서 스스로 ‘조선’을 삭제해 버릴 수밖에 없었고, 교시의 경우, 그의 사후 타율적으로 ‘조선’이 삭제되어 버렸다. 과연 이 둘의 조선 여행의 전후에, 표상을 둘러싼 맥락 속에는 어떤 정치적 맥락이 존재했던 것인가.

2. 소세키의 한국 여행(1909)과 교시의 조선 여행(1911) 사이 — 여관 ‘천진루’와 한인 ‘정운복’

다카하마 교시의 소설 「조선」의 시작 부분에는 ‘나’와 부인이 조선

8) 高浜虚子(1918), 『漱石氏と私』, アルス, pp. 84-87, 교시의 회고에 따르면, 소세키의 대학 친구였던 마사오카 시키(正岡子規)는 일본의 근대 하이쿠 정립에 지대한 영향을 준 인물로, 교시는 바로 그와 동향 출신으로 문하에 속해 있으면서 하이쿠 잡지 『호토토기스』(ホトトギス)의 편집을 맡아 보았다. 애초에 영문학 전공자였던 소세키에게 창작을 권유했던 것은 바로 교시로, 시키 사후 그의 옛집에서 매주 열리던 산회(山會)에서 그는 1904년 12월 무렵 소세키가 쓴 「나는 고양이로소이다」(吾輩は猫である)를 대독하여 발표하였고, 이 작품이 인기를 얻어 소세키는 일약 문단에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여행 기간 머물렀던 진고개(泥岬)의 일본식 여관 ‘남산루’(南山樓)가 등장한다. 이 여관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남산이 바다 보이는 남산정(南山町, 현 남산로) 부근에 위치한 2층의 여관이였다. ‘나’는 저녁 무렵에 기차로 남대문 정거장

에 도착해서 마중 나온 친구 ‘이시바시 고조’(石橋剛三)와 ‘호시노’(星野)를 만나 인력거를 타고 남산루로 향한다.

1912년에 출판된 단행본 『조선』의 해당 부분에 그려진 삽화를 보면, 남대문을 배경으로 이동하는 세 대의 인력거가 그려져 있다.⁹⁾ 이들이 가고 있던 숙소가 바로 여관 남산루였다.

이 여관 남산루는 교시가 1911년 4월과 6월 조선을 여행했을 때 묵었던 ‘천진루’(天真樓)를 모델로 한 것이었다.¹⁰⁾ 교시는 4월에는 아카기 카쿠도우(赤木格堂)와 함께 조선에 와서 이 여관에 머물렀고, 6월에는 혼자 와서 이 여관에 머무르면서 소설 집필에 전념하였다.¹¹⁾

9) 高濱虛子(1912), 『朝鮮』, 實業之日本社, p. 93에 실려 있는 삽화이다. 이 삽화는 『朝鮮漫畫』(薄田斬雲, 日韓書房, 1908)와 『コボ記』(日韓書房, 1908)의 삽화를 담당했던 토리고에 세이키(鳥越靜岐), 즉 호소키바라 세이키(細木原青起)가 그린 것이다. 이 토리고에 세이키에 대해서는 박광현(2011), 「‘조선’을 그리다 — 100년 전 어느 만화저널리스트의 ‘조선’」, 『일본학연구』 34,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pp. 99-126을 참고할 것.

10) 당시 발간된 『旅館要録(明治44年後期)』(東京人事興信所, 1911)에 나온 ‘천진루’(天真樓)에 대한 광고 기사를 보면, “천진루(天真樓) 남산정 2정목 메이지 40년(1907년) 개장 화양풍 3동 객실 17개, 숙박료 3엔 40전, 2엔, 1엔 오십전, 객은 상중(上中), 누(樓)의 주인은 닛타 아오키치(新田清吉) ‘조망 좋은 입지에 있음’”이라고 소개되어 있다.

11) 高濱虛子(1975), 「高濱糸宛(明治四十四年六月九日)」, 『定本高濱虛子全集』 15, 毎日新聞社, pp. 182-183. 교시는 1911년 6월 9일에 보낸 편지의 말미에 ‘경성 천진루 다카하마 키요시’라고 서명하여 자신이 머무르고 있는 곳이 바로 여관

또한, 이 천진루는 이보다 2년 정도 앞선 1909년 10월 나쓰메 소세키가 한국에 왔을 때 목었던 여관이기도 했다.¹²⁾ 나쓰메 소세키는 1912년 4월에 『조선』을 읽고 교시에게 써 보낸 편지에서, “2, 3일전 당신으로부터 받은 「조선」을 읽을 마음이 나서 지금 다 읽었습니다. 나도 조선에 갔었습니다만, 도저히 이렇게는 쓸 수 없습니다. 오묘상이라고 하는 이가 천진루의 누구라던가 하는 여자 중에 있었던 기분이 듭니다.”¹³⁾고 쓰고 있다.

소세키는 교시의 소설 「조선」을 읽으면서 바로 2년 전 자신이 조선에 갔을 때 머물렀던 여관 ‘천진루’를 떠올렸다. 이 소설 「조선」은 교시가 직접 조선을 여행하고 난 사생의 관점이 개입된 소설로, 소세키는 이 작품을 읽으며 자신의 조선 여행 경험을 바탕으로 소설의 행간에 여행 중 작가가 경험했던 인물 모델이나 공간 지리적 감각을 자연스럽게 개입시키고 있었던 셈이다.

나쓰메 소세키는 남만철도(南滿鐵道)의 총재인 자신의 친구 나카무라 요시코토(中村是公)의 초청으로 『도쿄아사히신문』(東京朝日新聞) 기자 자격으로 만주와 조선을 여행했다. 그는 9월 1일 고베를 출발해서 다렌, 뤼순을 거쳐 만주를 돌아보고, 하얼빈, 장춘을 거쳐 9월 27일 저녁에 안동현(安東縣)에 도착했고, 다음날인 28일 아침 기차로 구의주로 향하여 그날 저녁 정주를 거쳐 평양에 도착했다. 평양에 잠시 머무르며 그곳을 둘러본 소세키는 30일에 경성에 들어와 시부카와 겐지(澁川玄耳)를 만나 이후 경성에서의 일정을 함께 했는데 바로 그날 저

‘천진루’임을 보이고 있다.

12) 「夏目漱石氏着京」, 『京城日報』, 1909.10.2, “도쿄아사히신문기자 나쓰메 소세키씨는 만주 방면의 시찰을 마치고 그저께 밤 평양에서 입경하고 천진루에 투숙했는데 씨는 약 일주간 경성에 머무를 예정으로 이곳 관민 유지자는 끼리끼리 동씨의 환영의 준비 중이라더라.”

13) 夏目漱石(2019), 「高濱清宛(1912.4.18)」, 『定本漱石全集』 23권(書簡 中), 岩波書店, p. 548.

덕부터 천진루에 머물면서 경성 여행을 했던 것이다.¹⁴⁾

조선에 머무는 동안 소세키는 종로나 경복궁, 용산 등 경성 내부를 여기저기 돌아보고, 인근의 개성, 인천, 수원 등을 돌아보는 등 바쁘게 돌아다니다가 13일 경성 남대문 정거장에서 기차를 타고 도쿄로 향했다.¹⁵⁾

특히 여행 기간 중인 10월 5일에는 경성의 신문기자들이 주최한 환영회에 참여하였는데, 환영회 장소는 역시 진고개에 있던 화월루(花月樓)라는 요리점이었다.¹⁶⁾ 환영회를 주관한 것은 경성에 와 있던 일본인 신문기자단으로, 『조선이치니치신문』(朝鮮日日新聞)의 이마이 타다오(今井忠雄), 『경성일보』(京城日報)의 오오카 츠토무(大岡力), 『고국민신문』(國民新聞)의 경성주재원 쿠마가이 나오스케(熊谷直亮), 『京城通信』의 우즈노미야 코우자부로(宇都宮高三郎) 등이었다.¹⁷⁾

소세키는 이 날의 환영회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소세키가 경성에 있을 때 쓴 일기에 따르면, 당시의 기록이 다음과 같이 남겨져 있

14) 당시 나쓰메 소세키의 일기에는 여관 ‘천진루’에 대한 인상이 다음과 같이 남겨져 있다.

“경성 도착. 차로 천진(루) 여관에 갔다. 도로가 좋다. 순수한 일본의 개화(開化)이다. 여관도 순 일본식이다. 각 12첩으로 마음에 든다.”(夏目漱石, 『定本漱石全集』 20(日記・斷片), 岩波書店, 2018, p. 126, “1909년 9월 30일의 일기”)

15) 「夏目漱石子視察」, 『京城日報』, 1909.10.5.

16) 「大阪朝日記者歡迎」, 『大韓民報』, 1909.10.6, “日昨에 入城한 日本人 大阪朝日新聞 記者 澁川柳次郎 夏目金之助 兩氏를 歡迎하기 爲하야 京城에 駐在한 日本人 各新聞記者가 昨日 下午 六時에 晚餐會를 泥岬 花月樓에 開하고 本國 各新聞記者도 請激하얏다더라”(이후 옛 신문의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원문 그대로 쓰되, 일기의 편의를 위해 띄어쓰기한다.)

17) 「兩記者의 歡迎會」, 『京城日報』, 1909.10.5, “나쓰메 소세키와 야부노 무쿠쥬(藪野椋十, 시부카와 겐지의 필명) 양자의 입장을 기회로 하여 경성의 유지자 이마이 타다오(今井忠雄), 오오카 츠토무(大岡力), 쿠마가이 나오스케(熊谷直亮), 우즈노미야 코우자부로(宇都宮高三郎) 제씨가 발기인이 되어 금 5일 오후 6시부터 화월루에서 환영회를 열 터인즉, 뜻이 있는 사람은 동일 오후 3시까지 발기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다. “밤에 화월(花月)이라는 요리점에 초대되었다. 신문기자의 주창(主唱)으로 열린 연회이다. 다른 4, 5명 역시 와서 만났다. 전부해서 50명 정도, 한인 역시 3명 정도 있었다.”¹⁸⁾ 이 기록에 따르면, 환영회에 참석한 일본인 기자들은 대략 40여 명 이상이었던 셈으로, 당시 조선에 와 있던 일본인 신문기자들 거의 대부분이 참석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인 기자들도 이 소세키의 한국 방문을 취재하여 기사로 남겼는데, 당시 기사들의 초점은 이 환영회에 맞춰져 있었다.¹⁹⁾ 한편, 이 기사들 중에서 환영회에 참석했던 한국인 기자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황성신문』 10월 8일자에 실려 있는 것을 주목해 볼 수 있다.

帝國新聞社長 鄭雲復氏는 日昨에 渡來한 日本大阪朝日新聞記者 澁川, 夏目 兩氏를 再昨日下午二時에 該私邸로 請邀宴待하였다더라²⁰⁾

위의 기사는 1909년 당시 『제국신문』의 사장인 정운복(鄭雲復)이 나쓰메 소세키와 시부카와 겐지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사가 게재된 날짜가 10월 8일이고, 초대된 시기는 그저께로 되어 있으니 정운복이 그들을 초대한 날짜는 환영회 다음날인 6일 오후 2시이다. 또한, 이 기사의 제목이 ‘화월여흥’(花月餘興)이므로, 바

18) 夏目漱石(2018), p. 130, “1909년 10월 5일의 일기”.

19) 「記者晚餐」, 『皇城新聞』, 1909.10.7, “日昨 渡來한 日本大阪 朝日新聞記者 澁川柳次郎, 夏目金之助 兩氏를 歡迎하기 爲하야 内外國新聞記者 諸氏가 再昨日下午六時에 泥峴花月樓에서 晚餐會를 開하고 懇親의 意를 表하였다더라”

「大阪朝日記者歡迎」, 『大韓民報』, 1909.10.6, “日昨에 入城한 日本人 大阪朝日新聞 記者 澁川柳次郎 夏目金之助 兩氏를 歡迎하기 爲하야 京城에 駐在한 日本人 各新聞記者가 昨日 下午 六時에 晚餐會를 泥峴 花月樓에 開하고 本國 各新聞記者도 請邀하였다더라”

20) 「花月餘興」, 『皇城新聞』, 1909.10.8.

로 화월루에서 열린 환영회와 관계된, 그 자리에 참석했던 기자가 쓴 것이라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즉, 이 기사를 쓴 『황성신문』의 기자와 『제국신문』 사장 정운복은 경성에 온 나쓰메 소세키의 환영회에 한국인으로 참석하였고, 그 참석한 자리에서 정운복이 소세키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는 사실을 보거나 듣고 기사로 쓴 것이다. 소세키가 일기에 기록해 두었던 환영회에 참석한 3명의 한국인 중 한 명이 바로 정운복이었던 셈이다.

과연 나쓰메 소세키는 기사에 실려 있는 대로 정운복의 초대에 응했을까. 소세키는 10월 6일자 자신의 일기에서 이날 오전에 용산에 있는 군사령장관의 관사에 갔다가 용산 근처의 산에 올라 점심을 먹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²¹⁾ 이를 보면, 아마도 그는 이 초대에는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계획되어 있던 일정 때문인지, 한 달이 넘는 여행의 피로 때문인지, ‘경성교육회’ 같은 곳에서 요청했던 강연 같은 것들도 모두 거절하고 있었으니, 정운복의 사적인 초대에는 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일 저녁에 이뤄진 환영회에서 소세키가 정운복과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만큼은 명확하다. 정운복은 오래 전에 일본에 유학하여 일본어에 상당히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을 때 황족인 영선군 이준용을 수행하여 1898년부터 1899년까지 1년 남짓 영국에 다녀왔던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²²⁾ 1900년 9월에 영국으로 유학했던 소세키에 1년 앞서 영국에 다녀온 셈이 되어, 만찬 자리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화제로 올랐을지도 몰랐다. 혹은 당시 『제국신문』에는 이해조가 ‘소설’을 연재하고 있었던 무렵이니, ‘소설’에 대한 내용이 화제에 올랐을 지도 모를 일이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소세키가 한국에 왔을 때 만나서 대화를 나

21) 夏目漱石(2018), pp. 131-132, “1909년 10월 6일의 일기”.

22) 細井肇(1910), 『(現代)漢城の風雲と名士』, 日韓書房, pp. 207-211.

뵈던 바로 이 정운복이, 이어 2년 뒤 교시가 조선을 여행하고 쓴 소설 「조선」에 등장하는 ‘홍’(洪)이라는 등장인물의 실제 모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²³⁾

실제로 소설 「조선」에 등장하는 ‘홍’의 이력은 정운복과 상당히 유사하다. 「조선」속 ‘홍원선’(洪元善)은 일찍부터 일본에 유학하여 일본어에 상당히 능통하나 배일당에 가담하여 고문을 당한 인물로, 지금은 출세길이 막혀 좌절해 있는 당대의 지사였다. 또한 그는 당시로서는 특이하게도 유럽의 워털루 전장을 보러간 경험도 있었다.²⁴⁾

당시 신사명감 등에서 정운복에 관해 묘사한 내용을 살펴보면,²⁵⁾

23) 송민호(2021), 「다카하마 교시(高浜虛子)가 만났던 조선인 — 「조선(朝鮮)」에 나타난 식민지 지식인의 면영」, 『현대문학의 연구』 73, 한국문학연구학회, pp. 119-155, 교시가 1911년 조선에 왔을 때, 교시는 『京城日報』의 당시 사장 요시노 다자에몬(吉野太左衛門)의 요청을 받고 왔으며, 특히 6월에 왔을 때에는 감독인 도쿠토미 소호(德富蘇峰)가 연 연회에 정운복과 함께 참석했다는 기록이 소호의 일기에 남겨져 있다(德富蘇峰(1983), 「朝鮮所得簿」, 『德富蘇峰記念館所藏 民友社關係資料集』 別卷, 民友社思想文学叢書, 三一書房, p. 363). 이를 통해 교시가 조선에 왔을 때, 조선인 정운복을 만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정운복의 이력을 확인하면, 그가 바로 교시의 소설 「조선」의 ‘홍’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4) 다카하마 교시(2015), 김영식 옮김, 『조선』, 소명출판, pp. 202-203, “‘홍 상은 서양의 옛 전장도 많이 봤겠죠?’ / “많이 보지 않았으나, 워털루 등은 좀 보러 갔습니다. 시시한 곳입니다” / 홍 상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홍이 구주 만유의 경력이 있다는 사실은 이전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채 이 부분에서 갑자기 드러난다. 앞으로 다카하마 교시의 『조선』의 텍스트를 인용할 때, 이 번역본에 의거하고, 저자와 제목, 페이지수만 명기하고자 한다.

25) 牧山耕藏, 『朝鮮紳士名鑑』, 日本電報通信社京城支局, 1911, p. 181. “정운복 황해도 평산군 하서봉면 울동 사람. 지금 경성 명치정 3정목에 거주. 메이지 3년(1870년) 8월 31일 생, 오사카상업학교 출신, 30년(1897년) 이희공(李熹公)의 후계자 이준용씨를 따라 영국에 유학하여 구미 각국을 시찰하기를 약 1년, 32년(1899년) 돌아와, 34년(1901년) 이준용씨의 도당으로 지목되어, 전라 지도군 흑산도에 유배되기를 약 4년 무렵, 37년(1904년) 구면되어 귀경하고, 장로파 교회에 입교하였으나 후에 의견이 맞지 않아 나왔고, 자강회(후의 대한협회)에 들어갔다가, 39년(1906년) 경성일보 언문란의 주필이 되었고, 언문의 폐간과 함께

바로 그가 「조선」 속 ‘흥’과 상당히 흡사하게 닮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찍이 일본에 유학하여 일본어에 상당히 능통하다는 점, 그리고 영국 유학의 경험이 존재한다는 점 등이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흥의 내력 중에 배일당에 가담했다는 것은 바로 정운복이 대한자강회와 대한협회 활동을 했던 이력을 가리키는 것이다.²⁶⁾

요컨대, 정운복은 일본에 있다가 영선군 이준용을 수행하여 영국에 유학하고 돌아온 뒤, 이준용파로 몰려서 투옥되었다가 3년여 간 유배를 겪었는데, 이후 돌아와 대한자강회 활동을 하며 일진회와 대립하여 송병준 등과 나쁜 사이가 되었다. 『제국신문』 사장을 맡은 그는 신문의 경영난을 해결하고자 당시 통감이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교섭을 하여 통감부의 기관지로 채택해 달라는 운동을 벌였지만 실패하고 말았다²⁷⁾ 그러다가 강점 이후 정운복은 도쿠토미 소호에 의해 등용되어 『매일신보』의 주필이 되었고, 1911년 교시가 경성에 여행 왔을 때 『경성일보』 사장이었던 요시노 다자에몬(吉野太左衛門)의 요청

떠나, 제국신문을 주간하는 한편, 서북학회의 회장이 되었다. 경성일보의 관계로 여러 번 이토공의 눈에 띄어 지우를 얻었지만, 하얼빈비전(哈府悲電)과 함께 만사 수포로 돌아간 것이 애석해 마땅하다. 지금은 경성일보의 분신 매일신보의 주간으로서 명망이 있어, 일어에 능통해 번역이 지극히 뛰어나다.”

26) 송민호(2021), pp. 132-141.

27) 細井肇(1910), pp. 213-215, 호소이 하지메에 따르면, 정운복은 대한자강회 활동을 통해 일진회와 대립할 때, 송병준과 정견을 달리하여 대립이 격화되었다고 한다. 이 대립으로 인해, 정운복의 이후의 정치 행보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한다. 한편, 그가 『경성일보』 언론란의 주필이 된 것은 그가 런던에 있을 때 알고 지내던 이토 유우칸(伊東佑侃)이 1906년 9월 이토 히로부미의 명명(命名)으로 『경성일보』를 창간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이 와중에 이미 그의 정치적 행보는 자강회의 배일로부터 친일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 그는 『경성일보』의 활동을 통해 이토 히로부미의 신임을 얻었지만, 송병준과의 구원(舊怨) 때문에 결국 그가 바라던 『제국신문』의 통감부 기관지화는 이를 수 없었고, 이토는 그에게 내각서기관장으로 추천하겠다는 밀약을 해주었지만, 하얼빈에서 이토가 안중근 의사에게 암살되자 그 약속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것이다.

을 받아 교시의 여행에서 통역이나 수행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²⁸⁾ 이때 정운복을 눈여겨 둔 교시는 자신의 소설 「조선」에서 그를 ‘홍’이라는 인물로 그려냈던 것이다.²⁹⁾

이런 배경을 두고 보면, 일제 강점이라는 정치적 격변을 앞뒤로 약 2년의 시간 차이를 두고 각각 조선에 여행했던 나쓰메 소세키와 다카하마 교시는 여관 ‘천진루’라는 같은 공간에 머물렀고, 그 둘은 모두 정운복을 만났다. 게다가 교시의 경우 이 정운복을 자기가 쓴 소설 「조선」 속 가장 중요한 인물인 ‘홍’으로 초대하여 형상화하였다.

하지만, 교시가 소설 「조선」을 쓰던 1912년 무렵 소세키에게 문하의 제자들이 많이 생기고 『아사히신문』과 소설 전속 계약을 맺게 되어, 이 때 그 둘은 그다지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다.³⁰⁾ 게다가 소세키가 1910년 슈젠지의 대환 이후, 병상에 들었다 퇴원한 것이 1911년이었기

28) 吉野左衛門(1916), 『左衛門句集』, 曲水吟社, pp. 3-4. ‘다카하마 교시의 서문’, “(전략) 다만 지금까지도 오히려 빛이 되어 깊이 군(요시노 다자에몬 — 인용자)에게 받았던 것은, 내가 조선에 여행했던 당시 군으로부터 받은 이리저리한 호의였다. 이 조선행은 군이 경성일보의 사장이라고 하는 지위에서부터 이리저리한 편의를 줄 수 있으니, 조선에 여행하러 오는 것이 어떠냐고 권유받았기 때문에 갔었던 것이었지만, 군은 그 사무의 다단한 와중에도, 가능한 편의를 나에게 주었다. 소설 「조선」은 전부 군의 덕분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것이다.”

29) 「赤木格堂氏より」, 『ホトトギス』 15(6), 1912.3, pp. 64-65. “소설 가운데 약동하는 사건이나 인물을 모색해서 말로 아는 게 아닌 그리움을 느꼈사옵니다. 가운데 경복하울 것은 홍상(洪さん)의 인물이 가장 잘 묘출되어 진실에 다가가는 바가 실제 인물 이상이었사옵니다. 주의를 대충 기울이지 않은 것을 이해하옵나이다.” 1911년 4월에 교시와 함께 조선에 여행했던 아카기 카쿠도우(赤木格堂)는 소설 『조선』의 단행본이 나왔을 때 그것을 읽은 소감을 편지 형식으로 교시에게 보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여행 수첩을 본 느낌이라고 하면서 특히 소설 속 ‘홍’이라는 인물이 실제 인물 이상이었다고 쓰고 있다.

30) 高浜虚子(1918), pp. 158-165. 교시는 소세키와의 관계가 1908년 이후에는 간간하던 편지마저 끊어지게 되었다고 회고한다. 그는 그 연유로 소세키가 『아사히신문』의 전속이 되어 더 이상 『호토토기스』에 글을 보내지 않은 것과 소세키 문하에 제자들이 생겨 붐비게 된 것을 들고 있다.

때문에, 소세키가 「조선」의 독후감을 보내왔던 1912년은 오랫동안 격조했던 두 사람 사이에 오랜만에 연락이 이뤄졌던 때였던 것이다. 이처럼 격조했던 두 사람이 각각 했던 조선여행 사이에, 「조선」이라는 작품 속 공간, ‘천진루’와 ‘정운복’이라는 인물을 매개로 2년여의 시간을 사이에 둔 모종의 연결이 존재했던 것이다. 아마도 그 두 사람은 끝내 그 연결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이다.

3. 소설 「조선」에 드리워져 있는 정치적 낭만성의 잔영 — ‘을미사변’과 ‘완도사건’, 낭인화된 정치인의 정신 구조

「조선」의 시작 부분에 ‘나’와 부인이 경성에 도착했을 때, 남대문 정거장에는 그의 친구 두 명이 마중 나온다.³¹⁾ 그 중 한 명은 ‘호시노’ (星野)라는 친구로, 경성에 도착한 날 나의 부부를 여관까지 안내한다. 하지만, 그 외에는 호시노의 바쁜 사정인지, 내가 조선을 여행하는 남은 일정 동안에는 전혀 둘 사이의 교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대신, 남대문 역에서 호시노는 ‘김’(金) 부인이라 불리는 여인 ‘히라이 후사’(平井房)를 소개한다. 사실 그 여인은 ‘나’의 부인과는 어린 시절의 친구로, 조선 사람인 김성룡과 결혼하여 조선에서 살고 있다.

31) 다카하마 교시(2015), 「조선」, pp. 37-38. “어이, 왔군” / 내가 열차를 내렸을 때, 친구 이시바시 고조가 불쑥 말을 걸어왔다. / “자네한테도 한 번 와 보라는 권유도 받고, 호시노(星野)도 종종 권해서 결심하고 드디어 찾아왔네. 일부러 마중까지 나와 황송하군” 하며 나는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했다. / “호시노도 왔는데, 마중할 다른 손님이 있다던가 하더니만 그쪽으로 갔네”라고 말하고 고조는 거목 같은 몸에 지팡이를 짚고 사람들 속에 우뚝 서 있었다. 내 뒤에 있던 아내가 이윽고 얼굴을 내밀고 인사를 하자, / “아아, 잘 오셨습니다” 하며 고조는 미소를 지었다. 곧 호시노와 어떤 부인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 / “잘 왔네.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 기다렸네. 제수씨 잘 오셨습니다. 피곤하지 않나요?”라고 호시노는 말했다.

‘나’를 마중 나온 또 다른 친구는 ‘이시바시 고조’(石橋剛三)로, 그는 일찍부터 조선에 건너와 활동하고 있는 정치 낭인이다. 지금은 부부가 머물고 있는 여관 ‘남산루’의 다른 방에 투숙하고 있으면서 낮에는 장기나 두고 여관 고용인들과 농담이나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고조는 소설 속에서 ‘나’에게 기생인 오후데(お筆)와 지사인 홍원선(洪元善)을 소개해 주면서, ‘내’가 조선에서 좀 더 내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조선」이 연재되고 있던 도중 『도쿄이치니치신문』에 비평을 쓴 소세키의 제자 스즈키 미에키치(鈴木三重吉)는 「조선」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특히 기생인 오후데(お筆)나 소담(素淡), 홍원선(洪元善) 등이 당시의 소설에서 비슷한 유형을 찾기 어려운 활사화된 인물이라고 고평하면서도 유독 이시바시 고조에 대해서만큼은 ‘저런 정치깡패(政治ごろ)의 유형에 빠진 분자(分子)가 적지 않았’다고 비판적으로 평하고 있다.³²⁾ 즉 이시바시 고조는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내 사족들을 중심으로 들끓고 있던 정치적 욕망을 대륙으로 눈을 돌려 해소하고자 했던 제국주의 정치성에 기울어진 서사에 자주 등장했던 스테레오 타입화된 정치낭인들에 대한 재현 내지는 그 잔여였던 셈이다.

이러한 정치 낭인들은 일본이 막강해진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변국들을 침략하는 음험한 제국주의적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도, 이를 문명의 낙차를 이용한 정당한 정치적 개입이나 개척정신을 가지고 불모의 땅에 뛰어난 영웅의 활극으로 포장했던 메이지 중반의 ‘조선’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서사 속 소위 ‘지사’ 표상의 낭만적 잔영에 해당한다.³³⁾ 교시의 소설 「조선」에서도 역시 그러한 정치 낭인들의 낭만성이 길게 드리워져 있다.

32) 鈴木三重吉(1982), 「虛子氏の朝鮮」, 『東京日日新聞』, 1911.9.1~7(鈴木三重吉, 『鈴木三重吉全集』 5, 岩波書店, 2版, 1982, pp. 390-409에서 인용).

33) 朴春日(1969), pp. 20-89.

봄날의 밤 같은 느낌이 나는 어느 밤의 일이었다. 달은 종로 위에 높이 걸려 있고 조선인은 작은 초롱을 들고 의관속대로 인력거를 끄는 자가 있는가 하면, 머리에 뒤집어 쓴 장옷 속으로 흰 분을 바른 얼굴을 살짝 드러내고 총총히 걷는 여자도 있었다. 나는 이시바시 고조와 홍원선 두 사람을 따라 덕수궁 옆의 각국 영사관 — 원래는 공사관 — 근처를 산책하고 종로의 거리로 나왔다. 고조와 홍상 두 사람은 아까부터 덕수궁의 높은 돌담을 올라다보거나 포플러가 무성한 각국 영사관의 기와지붕을 바라보며 민비 몰후의 정변을 이야기했다. 그 이야기는 내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었다. 그것보다도 나는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거의 흘러들으면서 다른 생각을 하다가 어느새 이 종로 거리로 나왔던 것이다.³⁴⁾

작품 속에서 이시바시 고조와 홍원선은 ‘나’와 함께 종로의 거리를 걸으며, 민비(명성황후) 시해 이후의 정세에 대해 대화한다. ‘을미사변’은 이미 20년도 이전의 일이므로, 문맥상으로 보더라도 고조는 그 사건에 관여했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다만 그는 한국이 일제에 의해 강제로 합병되던 언저리에 기회를 찾아 한국에 건너온 전형적인 정치 난민에 해당한다. 홍원선의 경우 역시, 소설 속 그의 내력과 그 실제 모델 정운복의 사적을 고려하면, 을미사변이 있던 무렵은 일본에 있었으므로, 그 역시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지 않다.

지금 이들은 을미사변과 청일전쟁 무렵의 역사를 회고하며, 이를 정치적 낭만성의 기억으로 소비하고 있는 것뿐이다. 바로 고조가 ‘나’에게 경복궁에 있던 민비시해의 현장을 보여주는 대목에서 그러한 면모가 명확하게 드러난다.³⁵⁾ 즉 이 작품 속에서 언급되는 ‘을미사변’은

34) 다카하마 교시(2015), 「조선」, pp. 61-62.

35) 다카하마 교시(2015), 「조선」, pp. 146-147. “‘자네는 민비사건의 현장을 보았는가?’ / ‘나는 아직 못 봤네.’ / ‘그럼 가르쳐 주지.’ / 고조는 앞장서 갔다. (중략) 고조는 폐허의 흔적에 서서 당시의 역사를 말했다. 바람이 불어와 연못 위에 일어나는 물결이 투명한 수면에 불투명한 주름을 만드는 것을 흥미롭게 보면서

마치 하나의 시대 구분처럼 간주되어 낭인 무리들의 ‘좋았던 과거’를 보여주는 원체험으로서, 이후 낭인들이 꿈을 가지고 조선과 만주를 향해 넘어오도록 하는 동기처럼 제시된다. 이러한 낭만성에 침윤된 기억이 이 소설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을미사변’을 낭만적인 기억을 통해 회고하는 과정을 통해 앞선 시대 낭인들이 조선에서 자행했던 폭력은 ‘활극’이나 군인들의 정당한 ‘전투’로 포장되었고, 지금 식민지가 된 조선에 여전히 머무르면서 새로운 정치적 기회를 노리고 있는 ‘고조’의 행위는 앞선 시대와 연결된 커다란 기획의 일부로 정당화되고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소설 속에서 고조는 지금은 위험분자로 그가 총독부 정책에 반대하여 여는 연설회가 금지당하기도 하고, 조선에서의 경찰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있는 신세이다.³⁶⁾ 고조는 내적인 논리로만 본다면, ‘큰 일’을 하고자 조선으로 건너왔으나 일제가 한국을 강점한 이

나는 이야기를 들었다. 고조는 돌 위에 걸터앉아, / “홍망의 터 꿈과 같도다. 라고 하는데 정말 그대로군. 나중에 보면 아이 장난 같다고 생각되는 것이 당시 사람들에게 목숨을 건 일이었고,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식은 죽 먹기였던 일이 나중에 보면 청사에 기록될 대사업이 되기도 하네. 민비사건은 어느 쪽에 속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옛터에 와서 추상하면, 일종의 비극으로 생각되는가 하면, 또한 일종의 희극으로도 생각되네. 요즘 구로키 등이 하고 있는 일도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바보처럼 생각되지만, 훗날에 돌아보면 상당한 일을 한 것이 될지도 모르지.”

- 36) 다카하마 교시(2015), 「조선」, pp. 91-92. “고조는 여전히 자고 있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내지에 있을 때도 그 일거일동은 모두 탐정을 통해 경찰에 보고되었다. 그가 몇 번 요릿집에 가서 몇 시에 몇 엔 몇 십 전을 치루고, 그녀에게 얼마의 팁을 주었다는 것까지 기록에 남았다. 조선에 건너 온 후도 여전히 당국자의 주의에 변함은 없을 것이다. 그가 모월모일의 밤에 내지에서 온 문학과 회원들을 납치하여 조선요리에서 조선연극을 순회하고, 밤 열한 시경에 이르러도 아직 기생 소담의 집을 나오지 않았다는 것도, 나아가 소담의 집에서 그는 지갑에서 얼마의 지폐를 꺼내 메밀국수 4인분과 맥주 몇 병을 사오게 했다는 것도 내일 아침이 되기도 전에 보고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나, 단지 소담 집에서 붉은 요 위에 목침을 베고 누워서 머릿속으로 무엇을 생각했는지는 어찌면 그 보고에 빠질지도 모르겠다.”

후에는 오히려 제국의 위협분자가 되어버린 비분강개의 지사의 표상인 셈이다. 마찬가지로, 한때 반일당에 가담했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좌절을 겪고 이제야 친일로 기울어진 ‘홍’의 내력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지사의 표상을 공유하고 있다.

이처럼 이 소설에는 좌표화된 ‘을미사변’과 마찬가지로, 제국주의적 폭력의 역사를 이룬바 정치적 활극 내지는 성취 같은 낭만적 기억으로 환치하는 대목이 여기저기에 널려 있다. 특히 소설의 초반부에 이처럼 정치적 낭만성을 부여하는 대상으로 ‘완도사건’이 언급된다. 남대문 정거장에 도착한 ‘나’와 부인을 인력거로 여관 남산루에 데려다준 호시노는 방을 둘러보다가 문득 ‘완도사건’이라는 음모의 기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남산루의 이층 한 방에 호시노와 아내와 셋이 앉았을 때, 호시노는 그곳에 나온 하녀를 붙잡고 느닷없이 말했다.

“이 여자가 남산루의 오교 상이라고 낭인들 사이에서 유명한 여자 일세.”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오교 상은 호시노를 나무라는 듯이 말하고 드물게 여자 손님이 왔다는 듯 잠시 주의 깊게 아내를 바라보았다. 오교 상이 나간 후에 호시노는,

“분명 이 방일세, 그 완도사건(莞島事件)의 음모가 꾸며진 것은” 하고 방을 둘러보며 말했다. 문과 천정 사이에 걸린 액자는 누가 썼는지 모를 글씨이고, 도쿄로마의 족자는 오래된 말 그림이었다. 액자의 글씨도 해묵은 말 그림도 음모가 꾸며진 방이라는 분위기에는 잘 어울려 보였다. (중략) 나는 취한 머리를 베개에 기대고 그 뒷모습을 보면서 아까 친구가 말한 완도사건이나 남산 꼭대기의 비구니 절에서 왕궁과 비밀 통신을 했다는 로맨틱한 이야기를 떠올렸다.³⁷⁾

37) 다카하마 교시(2015), 「조선」, pp. 37-39.

호시노는 부부가 머물게 된 남산루의 방을 보며 문득 여기가 바로 완도사건의 음모가 꾸며진 곳이었다고 말한다. 그는 조선을 방문한 이들에게 남산루에서 일어난 역사적 음모의 기억을 환기하여 ‘나’로 하여금 낭만적 환상을 부추긴다. 이미 남산루 여관의 방안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 속에는 이미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이 착석되어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이 완도사건은 을미사변과 같은 방식으로 조선이라는 실제 공간을 낭만성의 기억에 침윤시키는 역할을 하는 기호이다.

이 ‘완도사건’은 식민지에 와서 무엇인가를 꾸미고 있는 고조의 일에 대해 ‘내’가 궁금해 하는 대목에서 다시 언급된다.³⁸⁾ 하지만 소설의 문면에 등장하는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이 고조가 일으킨 것인지, 아니면 을미사변과 같이 정치당인들의 그릇된 욕망을 추동하는 역사적 계기인지 하는 것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다만, ‘나’에게는 단지 남산 신사의 비밀 통신이라는 유언비어와 동격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완도사건’은 조선에 와 있는 낭인들 사이에는 꽤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 것처럼 다뤄진다.

그렇다면, 이 여관 ‘남산루’ 즉 실제의 ‘천진루’에서 꾸며졌다는 ‘완도사건’이란 실제로 어떤 사건이었을까. 바로 말해보자면, 이 ‘완도사건’은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으로 재직하고 있던 1908년, ‘에토 츠네사쿠’(江藤恒策)라는 일본인이 전라남도 완도의 삼림을 불하받고자 시도하였는데, 그 삼림이 국유림이어서 당시 내각에서 불하 계획을 거부했던 사건이다.³⁹⁾ 이렇게만 보면 간단한 사건처럼 생각되지만, 이 사

38) 다카하마 교시(2015), 「조선」, p. 55. “고조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체재하고 있는지 나는 거의 해석을 할 수 없었다. 그것은 오코에에게 물어봐도 명료하게 대답하지 않았다. 무언가 다시 완도사건과 비슷한 것을 획책하고 있는지 의심해 봤으나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39) 배재수·윤여창(1995), 『통감부시기(1906-1910)의 삼림정책에 관한 고찰 — 완도봉산의 불하미수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임학회지』 84(1), pp. 50-53. 완도사

건을 좀 더 상세히 뜯어보면, 실제로는 1908년과 1909년 무렵 통감부 내부에 자리 잡고 있던 권력적 암투와 강제 병합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치적 문제가 노골화된 사건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우선, 앞서 에토 츠네사쿠는 완도 삼림 불하를 요청하기에 앞서 한국의 염업(鹽業) 사업에 주목하고 제염에 대한 독점권을 얻고자 이토 히로부미 통감에게 관련 청원을 제출하고 보증금과 준비금으로 40만원(圓)을 보냈다. 하지만 당시 내각에서는 염업을 국영화하고자 하여 그 출원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이토 통감은 이것을 미안하게 여겨 손실을 보상하려고 무언가 다른 이익 있는 사업을 허가해주려 했던 것이다. 그래서 에토는 당시 농상공부차관인 오카 키시치로(岡喜七郎)와 상의하여 임업이 활발한 완도의 삼림 불하를 요청했던 것이다.⁴⁰⁾ 하지만, 당시 내각에서 오카는 내부차관으로 승진하고, 그와 반목 관계에 있던 키우치(木内)가 농상공부차관이 되자, 키우치는 이 삼림 불하에 제동을 걸었다. 그는 완도에 조사관을 파견하고 완도를 국유림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다.⁴¹⁾

다만, 이 완도를 둘러싼 사건에는 처음부터 1906년 통감 이토 히로부미의 촉탁으로 고용되어 함께 한국에 건너왔던 낭인 우치다 료헤이(内田良平)의 존재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다. 우치다 료헤이는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일진회’의 존재에 주목하고, 장래 합병을 위해 민간 조직으로서 일진회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것을 판단하였다. 이에 우치다는 당시 통감에게 감옥에 갇혀 있던 송병준을 석방시키고 일진회에 대한 재정을 지원할 것을 요청하면서⁴²⁾ 스스로 일진

건의 대강의 개요는 이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40) 馬場恒吾(1937), 『木内重四郎伝』, 헤랄드社, pp. 210-213.

41) 黒龍會 編(1966), 『日韓合邦秘史』 下卷, 原書房, ‘莞島問題の真相과 在韓官吏 軋轢の常態’, pp. 42-44.

42) 한상일은 『日韓合邦秘史』의 上卷(p. 55)을 근거로 우치다가 이토의 도쿄 레이

회의 고문을 맡았던 것이다. 이후 우치다는 일진회의 이용구, 송병준 등을 통해 한국 정부의 내정에 깊이 간여하였다.

이처럼 완도사건이란 우치다가 일진회를 이용하여 통감정치를 보조하고자 활동했던 대가로 이토가 한국 내 산업에 대한 독점권을 간접적으로 팔아넘기려 했던 시도일 가능성이 크다. 에토 츠네사쿠는 바로 돈을 출자한 쪽을 대행하여 한국 내 적절한 투자처를 찾고 있었던 것으로, 그 시도는 계속해서 내각의 반대 또는 통감부 일본 관리들의 알력으로 무산되었고, 이에 이토의 입장이 난처해졌던 것이다.

게다가, 이 와중에 경성에 있던 『도쿄이치니치신문』(東京日日新聞)이나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의 기자단이 이 내막을 알게 되어 관련 사건을 일본 내에서 연일 보도하여 일본 내에서 한국 통감 이토의 정치적 위치를 공격하는 계기가 되었다.⁴³⁾ 마찬가지로,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등 한국 내 신문들 역시 완도 삼림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에토가 한국 염업 사업에 진출하고자 활동하기 시작한 1908년 5월 무렵 농상공부 대신이었던 송병준(宋秉峻)과 그에 이은 조중응(趙重應)이 에토 츠네사쿠에게 뇌물을 받아 몇 배의 가치가 있는 완도 삼림을 싼 가격에 불하받을 수 있도록 획책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데 주력하였다.⁴⁴⁾

난자카 저택을 방문하여 일진회에 대한 재정지원을 호소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한상일(2002), pp. 188-191). 이토는 우치다가 일진회와 손잡고 있는 것을 그리 탐탁해하지 않았지만, 그의 요구에 따라 1907년 1월부터 6개월간 매달 2천원(圓)을 지원하였다(p. 189).

- 43) 森隆孝(1935), 『新聞街道 — 記者生活三十三年の回顧録』, 松永書店, p. 26.
 44) 「또삼림문제」, 『대한매일신보』, 1908.12.15. “일본인 강등홍척이 완도 삼림을 미슈헝기로 다투 송병준씨가 농대로 잇슬 썸에 금시계와 다른 선물을 주고 비밀히 운동헝였더니 송씨가 이거슬 계약헝여 주기로 일전 다투회의에 데출헝였는디 그 삼림의 가치는 스십 만 원이라 오십 만 원 이상이라 운운헝는 거슬 십만 원으로 결가가 되엿다더라”
 「량대신간흡슈단」, 『대한매일신보』, 1908.12.23. “니부대신 송병준 농상공부

결국 에토 츠네사쿠는 1909년 1월 통감부와 협상의 최종 결렬을 확인하고 도쿄로 돌아가 버렸다.⁴⁵⁾ 이 사건의 여파는 연일 커져 결국 송병준은 당시 내각에서 맡고 있던 내부대신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당시의 기록들은 이를 통감부 내부에서의 알력 싸움, 그리고 그 와중에 각각으로 편이 나뉜 이완용과 일진회 사이의 권력 다툼으로 묘사하고 여기에 언론이 공연히 비난하는 것처럼 쓰고 있으나, 이는 한국의 임업, 광업 등 유력산업을 두고 일본 내 자본 세력들이 낭인들을 앞세워 이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스캔들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이토 히로부미 통감이 통감직을 사직했던 것이 1909년 6월인데, 그의 대외적인 사직 이유가 한일 강제 합방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들고 있는 것과 달리, 이 완도사건에 관련된 스캔들의 여파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소설 「조신」에서 언급된 ‘완도사건’이라는 음모는 단지 일본의 자본가가 완도의 삼림 하나를 불하받으려 했다 실패했던 사건이 아니라, 일본 내 제국주의를 표방한 정치낭인들이 삼림이라는 이권을 매개로 통감부와 한국내각의 각료들을 포섭하고, 나아가 합병에 미온적이던 이토 통감을 실각시키고 나아가 한국을 강점하는 데까지 이른 일련의 정치적 활동을 가리키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대신 조중옹랑씨가 완도습림을 외국사투에게 풀어먹으라다가 성스치못헌일에 덕히여 스담들이 공문헌기를 그습림이 병치상 문데로 다형히 보전헌였스나 그 량씨의 간혹헌 슈단으로는 한국안에 늙은것이 업스면 물으거니와 잇기만헌면 필경 풀아먹고 말니라헌다더라”

- 45) 黒龍會 編(1966), 『莞島問題の真相과と在韓官吏軋轢の常態』, pp. 44-48. 당시 자료에는 이토가 우치다를 시켜 완도 삼림을 대신할 만한 이권을 취득하도록 하여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내자고 제안하였고 에토는 수락하였는데, 이후 오카 차관에게도 같은 말을 듣게 된 에토는 그 제안이 바로 이토의 내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돌아가 버렸다고 쓰고 있다. 이 자료는 우치다의 회고에 따른 것이며, 우치다는 자신을 완전히 믿지 않고 오카 차관에게 비슷한 말을 전하도록 한 이 일을 통해서 이토를 비판하고 있다.

즉, 천진루의 그 방에서 꾸며졌다는 완도 사건의 음모 속에는 이러한 정치적 의미가 있었다. 완도사건에 관계된 중심인물인 에토 츠네사쿠가 한국에 와 있을 때 천진루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이 당시 통감부의 정탐 내용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다.⁴⁶⁾ 즉 에토와 우치다 사이에 통감부와 일진회의 정치적 커넥션을 통해 조선 내의 주요 산업에 대한 이권을 침탈하고자 했던 이른바 음모가 논의되고 있던 현장이 바로 이 천진루의 방이었으며, 불과 3-4년이 지난 뒤 그 음모는 이 소설 「조선」 속에서 식민지 속 낭만적 기억으로 소비되고 있었다.

4. 식민지적 낭만과 정치에 침윤된 문학의 자리

— 낭인 ‘이시바시 고조’의 정체

이처럼, 이 소설 속에는 이처럼 식민지 ‘조선’이라는 공간을 정치적 낭만성의 대상으로 소비하고자 하는 시선이 중첩되어 두텁게 깔려 있다. 다만, 아마도 교시 자신일, 소설 속 ‘나’는 이처럼 ‘조선’에 내려앉아 있는 낭만적 기억의 잔영을 아무 관심 없다는 듯 듣고 있으면서 이를 그저 ‘사생’하고 있을 뿐이다. 소설 속에서 ‘내’가 낭인 고조가 조선에서 벌이고 있는 일련의 행동들에 대해 그 속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모른척하고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태도에 해당한다. 제국주의의 광풍이 몰아쳤던 시대 폐색의 시대에 그것이 유일하게 ‘문학’의 자리를 지키는 태도라는 듯 말이다.

교시의 이러한 태도는 경복궁 경회루에서 열린 간진회에 참석했다가 이완용을 소개받았던 일화를 쓴 「이완용백작」(李完用伯)이라는 글

46) 國史編纂委員會 編, 『統監府文書』 10, 國史編纂委員會, 2000, 「憲機第一三四號」
“경성 천진루 체재 완도문제자 에토 츠네사쿠 이 자는 오늘 밤 부산 급행열차로 귀국할 예정이라 함. 메이지 42년 1월 21일.”

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때 교시의 조선 여행에 동행했던 아카기 카쿠도우는 이완용을 만나 능숙하게 명함을 건네며 자신이 프랑스에 유학해서 식민학을 전공했음을 자신의 소개말로 삼는다. 이에 비해 교시는 다른 친구가 선물한 풀꽃더미를 쥐고 있다가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웃음거리가 되고 만다.⁴⁷⁾ 아카기는 조선 내에서 이른바 구직을 해야 하는 입장이었던 것에 비해, 교시는 자신이 문학자로,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음을 서툰 태도로 가장하고 있는 셈이다.

「조선」의 초반부에서 조선인 짐꾼소년에게 무턱대고 샴을 꺾는 장면이나 친분 있는 이가 가짜 고려자기를 팔려고 하는 장면 등을 통해 제국과 식민지의 권력 구도를 등에 업고 소소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추한 일본인’들을 그렸다가 많은 항의를 받았던 교시로서는⁴⁸⁾ 자신이 문학가로서 이렇게 식민지에서 이뤄지는 정치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는 정치적 입장이 유일한 선택지였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처럼 복잡하게 펼쳐진 소설 「조선」의 정치성을 파악하는 데, 작가가 사생하고 있는 낭인 ‘고조’의 정체를 확인하는 것은 꽤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앞서 교시와 함께 조선을 여행했던 아카기는 「조선」의 출판 후인 1912년 독후감을 담아 보낸 편지에서 이 이시바시(石橋)가 효우테이(飄亭)와 사에몬(左衛門)을 합금한 흔적이 있다고 쓰고 있다.⁴⁹⁾

47) 高濱虛子, 「李完用伯」, 『ホトトギス』 15(3), 1911.12, pp. 11-12.

48) 「조선」에 대한 평문을 쓴 스즈키 미에키치(鈴木三重吉) 역시 조선 아이에게 짐 맡기는 해당 장면을 언급하며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강조된 것이 아닌가 비판하며, 필요한 만큼 강조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이 장면이 당시 일본 독자들의 무의식에 내재된 추한 일본인에 대한 죄의식을 건드리는다는 사실을 자인한다(鈴木三重吉(1982), pp. 394-396). 당시 교시가 다룬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다는 정황은 이후 요네다 토시아키가 신문 연재 내용과 단행본의 개작 여부를 파악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지적하고 있다(米田利昭(1974), pp. 44-45).

49) 「赤木格堂氏より」, 『ホトトギス』 15(6), 1912.3, pp. 64-65. “오후테(お筆)라는 사람은 소생에게는 따라서 소설적 인물에 머무르웁니다. 이시바시(石橋)는 효우테이(飄亭)와 사에몬(左衛門)을 합금한 흔적이 있고, 아카시(明石)소장도 보이는 것

이 효우테이는 마사오카 시키 문하의 하이쿠 시인으로 강점 국면에 조선에 건너와 정치 활동을 펼친 경력이 있는 이오키 료조(五百木良三)이고, 사에몬은 『경성일보』 사장으로 교시에게 조선 여행을 제안하고 온갖 편의를 봐준 요시노 다자에몬을 가리킨다.

전후의 상황 상 작중 인물인 ‘호시노’ 쪽이 요시노를 모델로 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여행을 했던 아카기의 입장에서 소설 속 몇몇 장면에서 고조와의 에피소드가 실은 요시노 다자에몬과의 에피소드였다고 생각하면, 그가 작중 ‘호시노’와 ‘고조’의 모델을 나누어 맡고 있다는 접합적 상황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어쨌거나 이 아카기의 언급 이후로 소설 「조선」의 정치낭인 ‘고조’의 정체는 바로 이오키 료조로 얼마간 확정된 듯한 감이 있다.⁵⁰⁾ 특히 이러한 판단에 이오키가 마사오카 시키에게 하이쿠를 배운 제자로 교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을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마쓰모토 켄이치(松本健一)에 따르면, 이 이오키 료조는 마사오카 시키, 다카하마 교시와 같은 마쓰야마 출신이며 마쓰야마 의학교 출신으로 시키 문하에서 하이쿠를 배우다가 시키와 함께 청일전쟁에 위생병으로 참전했다. 전쟁이 끝난 이후, 신문사 기자를 하다가 그만두고 온전히 문학에 전념했던 시키와 달리, 그는 계속하여 신문 관계의 일

같고, 오마키(お牧)가 미인과 어울리는 것도 애교가 있고, 코노(河野)지국의 전장 안내에 이르기까지 잘도 그려내신 것들과 만발하게 피어 있는 까닭이옵니다. 소생 웬지 부인역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50) 石崎等(2006), 「高浜虚子 『朝鮮』의 成立」, 『立教大学日本文学』 97, pp. 34-36. 이 논문에서 이시자키는 아카기의 논의를 받아들여 「조선」 속 ‘이시바시 고조’를 효우테이와 사에몬의 합금으로 보면서, 교시 근처에 이러한 ‘호걸풍’의 인물로서 효우테이 이외의 인물을 생각하기 어렵다고 본다.

또한, 타카사키 소오지(高崎宗司)(2006), 조민숙 옮김, 「타카하마 교시(高浜虚子)의 『조선(朝鮮)』에 대하여」, 『일본근대문학』 5, 한국일본근대문학회, pp. 195-196에서도 마찬가지로 파악한다.

을 하면서, 정치의 방향으로 나아가 제국주의 정치에 투신하였다. 그는 일본신문사에서 발행했던 신문 『日本』의 기자로 근무하다가 국민동맹회(國民同盟會)를 설립한 고노에 아쓰마로(近衛篤磨)를 만나 그와 함께 정치계에서 활동했던 것이다. 그는 오가와 헤이키치(小川平吉) 등과 함께 러일전쟁 이후 러시아와의 강화 반대를 주도하기도 하고, 1907년에는 ‘일한병합건의’를 제출하기도 한 일본 내 제국주의 급진그룹의 일원이 되었다.⁵¹⁾ 그러한 정치 활동의 일환으로 그는 1910년 1월과 3월에 두 차례 조선문제동지회(朝鮮問題同志會)의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 내 일본인 신문기자단과 일진회 등과 합방 문제를 추진하는 활동을 전개했다.⁵²⁾ 이 이외에 그가 일제강점의 국면에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이력은 명확하지 않으나, 1929년 이후 세이교샤(政教社)의 기관지인 『日本及日本人』의 사장이 되는 등, 지속적인 제국주의 활동을 지속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⁵³⁾

교시는 『호토토기스』 1911년 12월호에 발표한 「역사」(轍死)라는 글에서 중국으로 떠나는 효우테이(飄亭), 즉 이오키 료조와 함께 기차를 타고 갔던 기억에 대해 쓰고 있다. 당시 료조는 1911년 10월 신해혁명의 시발점이 된 우창(武昌) 봉기에 참여하기 위해 도쿄에서 시모노세키로 가고 있었다. 교시는 신바시에서 가마쿠라에 있는 자택에 가는

51) 松本健一(2012), 『昭和史を陰で動かした男—忘れられたアジテーター・五百木飄亭』, 新潮社, 이오키에 대한 시키의 평가와 정치 참여에 대한 만류 부분은 “4장 정치적인 로만주의로”(pp. 123-187)를 참고할 수 있고, 이후 국민동맹회와 관련된 정치적 행동의 양상은 “5장 국가주의자의 무리”(pp. 188-228), 일제 강점 국면에서의 한국병합과 관련한 활동은 “6장 제국주의일본의 이데올로기”(pp. 229-280)를 각각 참고할 수 있다.

52) 당시 신문 기사를 검토하면, 이오키 료조는 1910년 1월 12일에 경성에 들어와 일주일 정도 머물렀고, 3월 13일에 다시 왔다가 3월 31일까지 머물렀다. 머무르는 동안 그는 경성 내 일본인 기자단이나 일진회 이용구 등과 밀접하게 회의하면서 합방 문제를 논의하였다.

53) 石川徳幸(2019), 「編集者としての五百木飄亭」, 『政経研究』 56(3), pp. 101-111.

길까지 그와 동행했다. 효우테이는 교시에게 이 우창 봉기를 ‘남청(南淸)의 혁명란’이라고 지칭하며, 이것이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말하면서, 그가 갖고 있는 제국주의자로서의 성격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교시는 그가 한일병합 때 도한하기 전에 이빨을 두 개 뺐고, 이번에도 두 개 뺐다고 하는 처참한 얼굴 위에, 그러한 자신이 일본의 국권에 기여하고 있다는 빛이 어리고 있는 것을 역시 잠자코 지켜보고만 있다.⁵⁴⁾ 기차 중간에 교시는 내렸지만, 효우테이는 그 기차를 계속 타고 가서 이어 나가사키까지 갔다가 배를 타고 상해로 갔다가 장강을 거슬러 우창까지 들어간다.⁵⁵⁾

이 우창봉기가 10월 초의 일이고, 이 글이 발표된 것이 12월호이므로, 아마도 두 사람이 함께 기차를 탄 것은 10월 20일 언저리에 있던 일일 것이다. 여전히 「조선」이 연재되고 있는 도중의 일이다. 이러한 효우테이의 내력을 살펴보면, 앞서 아카기의 언급대로 그의 인상은 「조선」

54) 高濱虚子(1911.12), 「轢死」, 『ホトトギス』 15(3), p. 3. “효우테이는 그때까지 이 런저런 이야기를 계속했다. 리일전쟁이 유색인종에게 각성을 주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실례를 열거하거나, 이번의 남청의 혁명난은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천재의 일우라는 것을 말하며 회심의 미소를 흘리거나 했다. 그 후로 또 이러한 것도 말했다. / “나는 한일병합 때 도한하기 전에 이빨을 두 개 뺐다. 그 후로 이번에도 역시 두 개를 뺐다. 내가 이빨을 뺐 때 일본의 국권이 확장하는 것이라고 말하니까 친구들이 웃었다네.” 그렇게 말하며 웃을 때 그의 검은 이빨 사이에 흰색 치아와 금색 치아가 들쭉날쭉해서 뭐랄까 처참한 면명에 머물고 있다. (중략) 나는 20년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의 경력은 대개 알고 있다. 그 같이 긴 낭인 생활을 계속해도 한 번도 약한 소리를 하지 않고, 항상 호연장담을 예사로 하고 있던 것도 진기할 만한 일이지만, 그가 그 황량하고 쓸쓸한 생활 사이에 있으며 또 문학의 기호(嗜好)를 잊지 않고 문학사상계의 추세에 착목하고 있는 것도 역시 상당히 묘할 만하다. 그래도 지금 그가 이 이빨의 조락(凋落)과 눈의 노화는 역시 그의 반생의 고투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다.”

55) 高濱虚子(1911.12), pp. 7-8에 교시는 두 사람이 헤어지고 난 뒤 효우테이로부터 받은 편지를 ‘飄亭來翰’라는 제목으로 부기해 두고 있다. 여기에서 효우테이는 자신이 나가사키를 거쳐 상해, 이후 한커우(漢口)를 거쳐 우창(武昌)으로 들어왔으며 교시에게 헤어진 이후 자신의 경로를 알리고 있다.

속 낭인 이시바시 고조와 어느 정도는 겹쳐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이 아카기의 인상비평을 받아들여, 예를 들어 이후의 논의처럼 당시 교시가 조선을 여행할 때, 이미 효우테이가 경성에 오래 전부터 머물러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당시 교시는 자신의 조선 여행에 대해서 하찮은 것이라도 모두 『호토토기스』의 ‘소식’란에 써두고 있었고, 그 대상이 ‘호토토기스’의 동인이라면 한 부분도 빠뜨리지 않았다. 조선 여행에 함께했던 아카기 카쿠도우에 대해서도 몇 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서, 만약 효우테이가 여행에 함께했다면, 교시가 그 사실을 기록해두지 않았을 리가 없다.

또한, 앞서 「조선」속 ‘홍’의 모델이 정운복이라는 가능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작품 속에서 정운복과 이시바시 고조는 일제 강점 언저리의 국면부터 꽤 오래 알고 지냈던 것처럼 쓰여 있는데, 만약 이 이시바시가 효우테이었다면 이러한 관계는 불가능하다. 효우테이는 주로 일본 내에서 신문사의 기자 내지는 급진적인 제국주의 정치가로 활동하였고, 그가 한국에 왔던 명시적인 기록은 1910년 초반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아카기는 1911년 12월 『호토토기스』에 실렸던 교시의 글 「역사(轍死)」를 보고서 효우테이로부터 ‘고조’의 인상을 역으로 추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는 중국에서 일어난 신해혁명의 소식을 듣고 바쁘게 달려갔던 효우테이의 소식으로부터 소설 「조선」속에서 갑자기 만주로 사라진 고조의 모습을 투영했던 것일 터이다.

오히려, 앞서 교시가 두 번째로 조선을 여행했던 1911년 6월에 『경성일보』 기자들과 교시와의 연회의 내용을 기록해 두었던 도쿠토미 소호가 자신의 일기에서, 5월 15일 경성으로 올 때, 다름 아니라 우치다 료헤이(内田良平)와 함께 신바시에서부터 경성까지 동행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⁵⁶⁾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즉 교시가 조

56) 도쿠토미 소호는 1911년 5월 15일 신바시를 출발해서 17일에 경성에 도착한다. 우치다 료헤이는 이때 소호와 신바시에서 경성까지 2박 3일의 여정에 동행하였

선에서 한창 소설을 쓰고 있던 와중에 일제 강점의 정국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정치 낭인인 우치다 료헤이가 만났을 가능성, 혹은 만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소호나 정운복을 통해서 그와 관련된 정치적 활동에 대해 전해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된다.

앞서 「조선」 속 ‘홍’의 실제 모델인 정운복은 일제 강점 전에 경성과 와 있던 일본인 중 대한자강회와 대한협회의 고문이었던 오가키 다케오(大垣丈夫)와는 물론 상당한 친분이 있었지만, 1909년 이후 친일로 기울어져 대한협회와 서북학회, 일진회가 연합하는 국면에서 일진회의 고문인 우치다 료헤이와도 상당한 교섭을 하고 있었다.⁵⁷⁾ 만약 「조선」 속에 등장하는 이시바시 고조의 모델이 우치다 료헤이라고 한다면, 정운복과 우치다와의 과거를 고려할 때, 작품 속에서 드러나는 ‘홍’과의 내밀한 관계 등의 내적 요건은 충분히 해명된다. 물론 교시 자신은 우치다와 인간적인 교섭이 없었지만, 도쿠토미 소호와 정운복으로부터 한국이 일본이 강제로 병합되는 국면에서 활동했던 우치다 료헤이라는 인물에 대한 견문을 듣고 소설을 쓰는 데 참고했으리라는 내적 정황은 확보되는 셈이다. 이를 통해 앞서 소설 속 ‘완도사건’이 갖는

다. 이후 소호는 18일에는 헌병사령관이자 경무총장인 아카시의 집에서 우치다와 회식하기도 한다. 소호는 이때 조선 전국을 여행하는데, 인천, 군산, 목포, 부산을 거쳐 청진, 원산에 들렀다가 경주, 대구를 거쳐 경성으로 돌아왔다가 6월 10일에 교시 등과 회식을 했던 것이다. 그 뒤에 그는 평양을 거쳐 진남포와 신의주와 안동현까지 다녀왔다(德富蘇峰(1983), pp. 361-365). 다카하마 교시는 1911년 6월 9일에 자신의 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소호가 경성에 체재중임을 알리고, 12일에 안동현 방향으로 간다고 하여, 자신도 16,7일 경 평양 쪽으로 가볼까 한다고 쓰고 있기도 하다(高濱虛子(1975), pp. 182-183).

- 57) 김종준(2010), 『일진회의 문명화론과 친일활동』, 신구문화사, pp. 255-257. 김종준은 대한협회와 일진회의 연합이 현 이완용 내각에 대한 불신임이라는 현실 정치적 공통분모에 의해 행해진 것이라고 파악한다. 강창일은 이를 대한협회, 서북학회, 일진회의 3파 제휴로 파악하고, 대한협회의 고문인 오가키와 일진회의 고문 우치다 사이의 한일 합병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해 헤프닝으로 끝났다 고 본다(강창일(2002), pp. 266-269).

의미까지도 새롭게 이해될 해석적 지평이 열리게 된다.

물론 이 소설 「조선」에서 ‘고조’가 갖고 있는 정치낭인으로서의 전형적 면모를 고려하거나 작중 ‘내’가 그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자신의 정치적 거리를 지키고 있는 태도를 고려하면, 이 ‘고조’를 ‘이오키 료조’인가, ‘우치다 료헤이’인가 확정하는 문제는 쉽게 해명하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오히려 교시가 이곳저곳에서 얻고 있는 인상을 종합적으로 투영한 결과라 파악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할 터이다.

하지만, 고조의 모델이 ‘이오키’든, ‘우치다’든 혹은 그 언저리에서 어떤 ‘합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든, 중요한 것은 제국주의의 광풍이 몰아치는 일제 강점의 와중에 식민지에서 여전히 새로운 기회를 찾아 헤매고 있는 낭인을 자신의 작품에 형상화했던 교시의 태도는 스스로가 가장하고 있는 비정치적인 자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국주의적 정치성의 분위기 속에 어느 정도 침윤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가 여관 ‘천진루’에서 머물며 소설 「조선」을 쓰면서, 총독부 체제의 조선에서의 정치낭인들의 활동을 낭만적으로 바라보는 공기 속에서 호흡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바로 그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5. 결론

1909년과 1911년 일제 강점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사이에 두고 나쓰메 소세키와 다카하마 교시라는 두 일본인 문학가는 각각 조선을 여행했고 여행기에 해당하는 글을 남겼다. 하지만, 소세키는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과 관련한 정치적 변화에 부담을 느껴 자신의 여행기에서 ‘조선’ 부분을 삭제해 버렸다. 이에 비해, 교시는 소설 「조선」을 발표했고, 이후로도 자주 조선을 방문하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관련된 여행기를 남겼지만, 일본의 패망과 식민지 조선의 해방

이후, 그가 쓴 「조선」이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그의 문학사 내에서 타율적으로 삭제되었다.

본 연구는 바로 제국주의 광풍이 불어오던 시기 일본의 문학사 내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던 두 명의 문학자가 ‘조선’, 그리고 여관 ‘천진루’를 매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폈다. 그리고 나아가, 특히 교시의 소설 「조선」이 궁극적으로 제국주의적인 정치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토대를 그가 모델로 삼고 있던 정치 낭인의 실체를 통해서 보여주하고자 시도하였다. 특히 그 속에 조선총독부 언론 정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도쿠토미 소호와 『京城日報』의 사장 요시노 다자에몬, 그리고 정운복 등 교시가 조선에 오기 전부터 맺고 있던 관계와 새롭게 맺게 된 관계, 그리고 그들로부터 들었던 견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었다. 교시라는 문학자가 자신의 소설 속에 투영했던 제국주의적 정치성이란 바로 이러한 내밀한 관계와 견문을 통해 형성된 일종의 낭만적인 시선으로 표출되었던 것이다.

제국의 문학가인 다카하마 교시가 식민지를 바라보는 관조적인 시선 내부에 이미 타자에 대한 낭만성이 들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데 대한 비판적 의식 없이 정치성에 침윤된 문학을 구하는 길은 요원했을 터였다. 바로 이것이 문학자인 교시가 ‘조선’에서 맞닥뜨린 정치적 한계였다.

참고문헌

【자 료】

- 黒龍會 編(1966), 『日韓合邦秘史』 上, 下卷, 原書房.
鈴木三重吉(1982), 『鈴木三重吉全集』 5, 岩波書店, 2版.
高濱虛子(1975), 『定本高濱虛子全集』 15, 毎日新聞社.
_____ (1973), 『定本高濱虛子全集』 13, 毎日新聞社.
_____ (1918), 『漱石氏と私』, アルス.
_____ (1912), 『朝鮮』, 實業之日本社(다카하마 교시(2015), 김영식 옮김, 『조선』, 소명출판).
徳富蘇峰(1983), 『朝鮮所得簿』, 『徳富蘇峰記念館所藏 民友社關係資料集』 別卷, 民友社思想文学叢書, 三一書房.
夏目漱石(2019), 『定本漱石全集』 23권(書簡 中), 岩波書店.
_____ (2018), 『定本漱石全集』 20권(日記・斷片), 岩波書店.
細井肇(1910), 『(現代)漢城の風雲と名士』, 日韓書房.
馬場恒吾(1937), 『木内重四郎伝』, ヘラルド社.
牧山耕藏(1911), 『朝鮮紳士名鑑』, 日本電報通信社京城支局.
森隆孝(1935), 『新聞街道 — 記者生活三十三年の回顧録』, 松永書店.
吉野左衛門(1916), 『左衛門句集』, 曲水吟社.

『ホトトギス』, 『京城日報』, 『毎日申報』, 『皇城新聞』, 『데국신문』, 『대한미일 신보』, 『大韓民報』, 『統監府文書』(국사편찬위원회 편) 외.

【논 제】

- 강창일(2002), 『근대 일본의 조선침략과 대아시아주의』, 역사비평사.
김종준(2010), 『일진회의 문명화론과 친일활동』, 신구문화사.
배재수 · 윤여창(1995), 『『통감부시기(1906-1910)의 삼립정책에 관한 고찰 — 완도봉산의 불하미수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임학회지』 84(1), pp. 50-53.
송민호(2021), 「다카하마 교시(高濱虛子)가 만났던 조선인」, 『현대문학의 연

- 구』 73, 한국문학연구학회, pp. 119-155.
- 조향래(2006), 『韓末 日帝의 韓國侵略史研究』, 아세아문화사.
- 표세만(2017), 「도카이 산시(東海散士) 『가인지기우(佳人之奇遇)』의 조선 인식」, 『日本語文學』 75, pp. 343-362.
- 한상일(2002), 『아시아 연대와 일본제국주의: 대륙낭인과 대륙팽창』, 오름.
- 타카사키 소오지(高崎宗司)(2006), 조민숙 옮김, 「타카하마 료시(高浜虚子)의 『조선(朝鮮)』에 대하여」, 『일본근대문학 — 연구와 비평』 5, 한국일본근대문학회, pp. 179-202.
- 石崎等(2006), 「高浜虚子朝鮮の成立」, 『立教大学日本文学』 97, pp. 30-42.
- 朴春日(1969), 『近代日本文学における朝鮮像』, 未來社.
- 松本健一(2012), 『昭和史を陰で動かした男—忘れられたアジテーター・五百木飄亭』, 新潮社.
- 水野達朗(2007), 「写生の境界 —高 浜虚子朝鮮の様式」, 『比較文学』 49, 日本比較文学会, pp. 21-34.
- 米田利昭(1974), 「虚子の『朝鮮』」, 『日本文學』 23, 日本文学協会, pp. 34-50.

원고 접수일: 2021년 4월 5일

심사 완료일: 2021년 5월 5일

게재 확정일: 2021년 5월 10일

ABSTRACT

Imperial Gaze and Colonial Romanticism:

The Place called Ryokan ‘Cheonjinnu’ (天真樓) in
Takahama Kyoshi’s *Joseon* (朝鮮)

Song, Minho*

After the trip to Manchuria and Joseon in 1909, Natsume Soseki (夏目漱石) had no choice but to take out the ‘Joseon’ part from his travelog for fear of making political conditions worse in the imperial climate of the times. Takahama Kyoshi, who was close to Soseki in the literary world of Japan, also traveled to Joseon twice in 1911, and wrote the novel *Joseon*. After Japan's defeat and Joseon's liberation, however, this novel of Kyoshi was excluded from his literary history according to another's will, because it was considered to be too political and too close to the imperial situation. 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explanations on the political orientation that writers of the imperial era had no choice but to face, focusing on these ‘two deleted accounts of Joseon’. Soseki and Kyoshi's travels to Joseon took place two years apart, and they were connected through the place, ‘Cheonjinnu’ (天真樓) and the person, ‘Jung UnBok’ (鄭雲復). The Ryokan called ‘Cheonjinnu’ in the novel also displayed col-

*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Liberal Arts, Hongik University

onial romanticism through the conspiracy of the ‘Wando Scandal’, which had been fabricated by political vagabonds. The person at the center of this real ‘Wando Scandal’ was Ryohei Uchida, who had planned the political connections and sought political profits between Iljin Society (一進會) and the the Residency-General (統監府) prior to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he was most likely the model for Gojo (剛三), a vagabond in the novel, *Joseon*. This paper confirms that the romantic approach to the activities of political vagabonds, from the brutal assassination of Queen Myeongseong (乙未事變) to the Wando Scandal (莞島事件), is the background for the novel *Joseon* of Takahama Kyoshi. Even if Kyoshi himself emphasized his literary position and the technique of literary sketch (寫生), distancing himself from imperial politics, the atmosphere of imperial politics had ready been forced to be contained in his eyes to make a sketch. This may show the common limitations that all literature of the Imperial Era could not be free from.

